

상호보완의 북미단일경제권

서청석
〈정경대학교 교수·무역학〉

I. 세계 경제 3대 동등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재편되고 있다.

'동서냉전'이 종식되며 이념을

로기어 따른 '지역화적 질서'가

「政學의 秩序」가 실리에 따른 「政學의 질서」로 변모해가고 있다. 신진국과 선진국의 「발세 계주의」 운동이 양면적이며, 입지조건에 따른 지역중심의 「발세 계주의」 운동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전후 세계정치질서를 지배한 3대 동등은 「발세 계주의」(globalism), 「국가주의」(nationalism), 「지역주의」(regionalism) 운동으로 대변할 수 있다. 첫째는 IMF-GATT의 발세 계주의운동으로서 각 나라사이에 거리를 자유화하고, 차별을 두지 말 것을 주장한다. 「인력」(人力) 작용을 해 왔으나 지나치게 산만 국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둘째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운동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대국과 대립한다. 각각 국가주의로 출어하며 서로 밀어내는 「척력」(斥力) 작용을 하고 있다.

셋째는, 지역주의 운동으로서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는 국가끼리 경제협력력을 결속하여 공동으로 여내발전을 추구한다. 블록은 동등한 가맹국끼리는 서로 끌어들이는 인력작용을, 비가맹국에게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작용을 도모함으로써 발세계주의와 국가주의의 목적을 이상적으로 달성시켜 줄 수 있다는 기대에서 세계도처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다.

II. NAFTA의 결성과 방향

1992년 8월 12일 발표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노동, 자본,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각종 경제정책의 동등한 기하에 단일발달경제권을 형성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약 7분의1의 면적, 3366천만의 인구, 6조달러의 시장규모를 가진 이들 3국은 유럽의 EC와 함께 세계경제를 주도해 갈 행력을 이루고 있다.

현재 미국은 전후 막강한 경제

력을 바탕으로 범세계주의를 추진하며 막대한 이권을 누리왔다. 그러나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내게 경제력의 저하상태에 비추어, 대외한 기술투자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아시아로 전향되어 왔고, 미국은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의 적자가 급증한 데다가, 유로파와 일본의 쇄입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대립으로 경제와 위상이 악화되

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와 기

술을 유용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데, 캐나다의 미국의 캐나다

에 대한 기술투자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아시아로 전향

되어 왔고, 미국은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의 적자가 급증한 데

다가, 유로파와 일본의 쇄입타

격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대립으로 경제와 위상이 악화

되고 있다.

미국이 기술자본집약산업에,

캐나다는 자원자본집약산업에,

멕시코는 노동집약산업에 비교

우가 있어 교역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된다.

1991년말 이들 3국사이에 연

내 무역은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의 비중은 매우 높지만 캐

나도와 멕시코의 비중은 매우 낮

았으나 이번 NAFTA의 결성으로

이들 3국경제구조의 이질성을 극

복하여 지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과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

하여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

고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 및 경

상수지의 적자가 급증한 데다

가, 유로파와 일본의 쇄입타격

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대립으로 경제와 위상이 악화

되고 있다.

미국이 기술자본집약산업에,

캐나다는 자원자본집약산업에,

멕시코는 노동집약산업에 비교

우가 있어 교역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된다.

1991년말 이들 3국사이에 연

내 무역은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의 비중은 매우 높지만 캐

나도와 멕시코의 비중은 매우 낮

았으나 이번 NAFTA의 결성으로

이들 3국경제구조의 이질성을 극

복하여 지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과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

하여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

고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 및 경

상수지의 적자가 급증한 데다

가, 유로파와 일본의 쇄입타격

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대립으로 경제와 위상이 악화

되고 있다.

고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 및 경

상수지의 적자가 급증한 데다

가, 유로파와 일본의 쇄입타격

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대립으로 경제와 위상이 악화

되고 있다.

미국이 기술자본집약산업에,

캐나다는 자원자본집약산업에,

멕시코는 노동집약산업에 비교

우가 있어 교역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된다.

1991년말 이들 3국사이에 연

내 무역은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의 비중은 매우 높지만 캐

나도와 멕시코의 비중은 매우 낮

았으나 이번 NAFTA의 결성으로

이들 3국경제구조의 이질성을 극

복하여 지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과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

하여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

고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 및 경

상수지의 적자가 급증한 데다

가, 유로파와 일본의 쇄입타격

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대립으로 경제와 위상이 악화

되고 있다.

고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 및 경

상수지의 적자가 급증한 데다

가, 유로파와 일본의 쇄입타격

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대립으로 경제와 위상이 악화

되고 있다.

미국이 기술자본집약산업에,

캐나다는 자원자본집약산업에,

멕시코는 노동집약산업에 비교

우가 있어 교역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된다.

1991년말 이들 3국사이에 연

내 무역은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의 비중은 매우 높지만 캐

나도와 멕시코의 비중은 매우 낮

았으나 이번 NAFTA의 결성으로

이들 3국경제구조의 이질성을 극

복하여 지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과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

하여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

고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 및 경

상수지의 적자가 급증한 데다

가, 유로파와 일본의 쇄입타격

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대립으로 경제와 위상이 악화

되고 있다.

고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 및 경

상수지의 적자가 급증한 데다

가, 유로파와 일본의 쇄입타격

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대립으로 경제와 위상이 악화

되고 있다.

미국이 기술자본집약산업에,

캐나다는 자원자본집약산업에,

멕시코는 노동집약산업에 비교

우가 있어 교역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된다.

1991년말 이들 3국사이에 연

내 무역은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의 비중은 매우 높지만 캐

나도와 멕시코의 비중은 매우 낮

았으나 이번 NAFTA의 결성으로

이들 3국경제구조의 이질성을 극

복하여 지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과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

하여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

고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 및 경

상수지의 적자가 급증한 데다

가, 유로파와 일본의 쇄입타격

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대립으로 경제와 위상이 악화

되고 있다.

고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 및 경

상수지의 적자가 급증한 데다

가, 유로파와 일본의 쇄입타격

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대립으로 경제와 위상이 악화

되고 있다.

미국이 기술자본집약산업에,

캐나다는 자원자본집약산업에,

멕시코는 노동집약산업에 비교

우가 있어 교역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된다.

1991년말 이들 3국사이에 연

내 무역은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의 비중은 매우 높지만 캐

나도와 멕시코의 비중은 매우 낮

았으나 이번 NAFTA의 결성으로

이들 3국경제구조의 이질성을 극

복하여 지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과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

하여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

고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 및 경

상수지의 적자가 급증한 데다

가, 유로파와 일본의 쇄입타격

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대립으로 경제와 위상이 악화

되고 있다.

독자투고

현재 시기는 단지 한 공화국의

말기 현상이라고 보기에 도가

지나치다. 연수원부지 특혜 매

각을 비롯한 정보사부지 사기사

건 등 '알 수 없다'는 일들이 꼬리

를 물고, 각종 국가재산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집단에

의해 요리되고 있다.

모든 정권의 말기가 그러하듯

제6공화국도 두가지 이유에서 정

치자금에 모아야 하는 입장에 놓

여 있다. 그 첫째는 노동운동의

병의 퇴임후의 공화유지비를 확

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약 1천억원 규모

의 현금이 '퇴임 후 기금'으로

마련 되었고, 이 기금으로부터

떨어지는 월 이자 10억원 정도가

정체자금 마련의 첩병 - 이권사업

5공의 의혹사건에 대한 구조적 고찰

합 불량 자제도 많지 않다.

그렇다면 제6공화국말기에 남

아 있는 정체자금 수수방법은 무

엇인가?

유신과 제5공화국 시절 정권의

같은 특혜와 비호 속에 정권과

진밀한 유착관계를 맺어 왔던 '현

대'는 제6공화국의 정권과 함께

정권의 유착관계를 거부한 것이

다. 이것은 1987년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재벌에게도 각성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6공화국말의 경우엔 정체자

금수수는 제6공화국 말기부터

반면과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 대

지주로부터 리베이트를 거둬들이

는 방법이 통용되었던 것으로 알

려진다. 재계로부터는 이런 불합

여부와 관계없이 준조세 형태로 6

천억~7천억을 끌어냈다는 이야기

다. 제5공화국이 재계로부터 이런

과 무관한 준조

세를 거둬들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정치

권위주의와 정

계정으로부터

정체자금 마련의 첩병 - 이권사업

5공의 의혹사건에 대한 구조적 고찰

합 불량 자제도 많지 않다.

그렇다면 제6공화국말기에 남

아 있는 정체자금 수수방법은 무

엇인가?

유신과 제5공화국 시절 정권의

같은 특혜와 비호 속에 정권과

진밀한 유착관계를 맺어 왔던 '현

대'는 제6공화국의 정권과 함께

정권의 유착관계를 거부한 것이

다. 이것은 1987년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재벌에게도 각성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6공화국말의 경우엔 정체자

금수수는 제6공화국 말기부터

반면과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 대

지주로부터 리베이트를 거둬들이

는 방법이 통용되었던 것으로 알

려진다. 재계로부터는 이런 불합

여부와 관계없이 준조세 형태로 6

천억~7천억을 끌어냈다는 이야기

다. 제5공화국이 재계로부터 이런

과 무관한 준조

세를 거둬들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정치

권위주의와 정

계정으로부터

정체자금 마련의 첩병 - 이권사업

5공의 의혹사건에 대한 구조적 고찰

합 불량 자제도 많지 않다.

그렇다면 제6공화국말기에 남

아 있는 정체자금 수수방법은 무

엇인가?

유신과 제5공화국 시절 정권의

같은 특혜와 비호 속에 정권과

진밀한 유착관계를 맺어 왔던 '현

대'는 제6공화국의 정권과 함께

정권의 유착관계를 거부한 것이

다. 이것은 1987년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재벌에게도 각성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6공화국말의 경우엔 정체자

금수수는 제6공화국 말기부터